

2018년 서울시 7급 한국사(A책형) - 3월 24일 시행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정답 : ④

- ④ 한인 애국단 소속 이봉창의 투탄 의열 활동은 1932년 1월의 일이다.
①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한 것은 1925년의 일이다.
② 경성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아사동맹’은 1923년의 일이며, 이후 일제 강점기에 서 일어난 노동·소작 쟁의의 주요한 투쟁 수단이 되었다. ③ 신체호가 의열단의 활동 강령인 「조선 혁명 선언」를 작성한 것은 1923년의 일이다.

2. 정답 : ①

제시된 <보기 1> 지도는 조선 대종 대 만들어진 ‘흔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 ㄱ. ㄴ. 「흔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권근이 쓴 발문과 그의 저서인 『양촌집』에 실린 「역대제왕흔일강리도지」에 따르면, 원나라에서 들어온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승려 청준의 「흔일강리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추가하여 『흔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실제보다 크게 그려 진취적인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ㄹ. 현재 우리나라에는 흔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원본이 전해지지 않으며, 규장각에는 모사본만 있다. 대신 일본 교토의 류코쿠대학 도서관에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으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1988년에 류코쿠대학 소장본과 거의 같은 지도가 일본 규슈의 혼코사에서 발견되었는데, 류코쿠대학 소장본이 비단에 그려진 것과 달리 혼코사 소장본은 한지(漢紙)에 그려졌다. 그러나 이 필사본 역시 비공개 상태이다. 아마도 이 지도들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ㄷ. 흔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작게나마 아프리카와 유럽은 나타나 있지만, 아메리카 지역은 등장하지 않는다. ㅁ. 동국지도는 세조 대 만들어진 지도로 흔일강리역대국도지도보다 뒤에 제작되었다.

3. 정답 : ①

제시된 (가)는 광개토대왕릉비로, 광개토대왕릉비는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장수왕 대 건립되었다.

- ① 436년(장수왕 24) 북위의 공격으로 북연이 망할 위기에 빠지자 고구려군은 북위군보다 한발 앞서 북연의 도읍인 화룡성에 진입하여 무기고와 성 안을 약탈하고, 북연왕 풍홍과 백성들을 이끌고 고구려로 철수하였다. 눈앞에서 북연 왕을 빼앗겨 분개한 북위는 고구려에 항의를 하고 군사적 공격까지 검토했다. 고구려로 넘어온 풍홍은 자신을 대하는 장수왕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남송(南宋)으로 재망명을 꾀하였다. 남송에서는 풍홍을 맞이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고 고구려에 비용을 대라고 요구했으나, 장수왕은 사람을 보내 오히려 풍홍과 그 자손 10여 명을 살해하였다. 목적 달성에 실패한 남송의 사신이 자신이 끌고 온 군대를 동원해 풍홍을 살해한 고구려 장수를 습격해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②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영토 확장 정책을 펼쳐 비려를 복속하고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 지역을 장악하였다. ③ 당나라에서 도교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것은 연개소문으로, 보장왕 대의 일이다. ④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한 것은 600년 영양왕 대의 일이다.

4. 정답 : ②

<보기>의 (갑)은 매매·상속·증여가 가능하였던 ‘노비’이다.

② 조선 시대에는 일천족천의 원칙에 따라 부모 중 한명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다. ①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③ 사노비 중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은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④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의 경우 관청의 잡역을 담당하고 관수품을 제작하였다.

5. 정답 : ③

③ 삼균주의에서 나타난 경제 분야에서의 주요 내용은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통한 경제적 균등을 이루하는 것이었다.

① 조소앙은 1930년에 상해에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에 의해 결성된 한국 독립당의 구성원이었다. 이때 조소앙은 춘원(孫文)의 삼민주의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삼균주의를 제창하였고, 이것은 당시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②, ④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한 균등을 표방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골자로 한다. 개인 사이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으로, 민족 사이의 균등은 민족자결로, 국가 사이의 균등은 식민정체와 자본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 전쟁을 막아야 이를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6. 정답 : ③

(가)는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한 ‘자장’이다.

③ 자장은 승려들의 엄격한 금욕 생활과 의식을 강조한 계율종을 개창하고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신라 불교를 총관하였다.

① 세속 5계를 만들어 화랑도에게 충효 원리를 보급한 인물은 진평왕 때의 승려 원광이다. ②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통해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효는 일심이문(一心二門)의 이론으로 중관과 유식의 특징을 종합하면서 『대승기신론』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④ 밀교는 비밀 불교 또는 밀의(密儀) 종교의 약칭이자 현교(顯敎)라 불리는 일반 불교에 대한 대칭어로 주술적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다. 선덕여왕 재위기 선덕여왕이 병이 나자 경주 흥륜사 승려 법척이 오랫동안 병을 돌보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자 밀본 법사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밀본이 왕의 거처 밖에서 『약사경(藥師經)』을 읽고 나니 그의 지팡이가 침전 안으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와 법척을 찔러 밖으로 내쳤고, 이후로 왕의 병이 나았다고 전해진다.

7. 정답 : ③

ㄷ. 충렬왕 대인 1284년 감수국사 원부, 수국사 허공·한강 등이 『고금록』을 편찬하였는데, 현존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ㄹ. 『제왕운기』는 원 간섭기인 충렬왕 13년(1287)에 이승휴가 편찬한 역사서이다. ㄱ. 『본조연년강목』(1317)은 충숙왕 때 민지가 편찬한 성리학적 역사서로 주자의 강목법을 도입한 최초의 역사서에 해당한다. ㄴ. 이제현은 공민왕 때 성리학의 왕도 정치 이념에 따라 『사략』을 편찬(1357)하였다.

8. 정답 : ③

③ 『경국대전』에는 탐관오리의 자식, 재가녀의 자손 및 서얼의 자손에게 문과 및 생원·진시시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었다.

① 소과인 생원과와 진사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하여 문과 응시를 준비하였다. ② 문과의 초시에서는 총 240명을 선발하였는데, 성균관시 50명, 한성시 40명, 향시 150명으로 향시는 각 도의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④ 문과의 최종합격자에게는 합격 증서에 해당하는 홍패를 수여하였다.

9. 정답 : ④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ㄴ. 3선 개헌은 1969년, ㄷ. 학생 교련 반대 시위에 따른 위수령 발령은 1971년, ㄹ.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은 1975년, ㄱ. YH 무역 사건은 1979년의 일이다.

10.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유서이다.

④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민종식은 관직을 벼리고 고향 정산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켰고, 홍주에서 활동하던 이세영, 안병찬이 이에 합세하였다.

① 1894년 1차 동학 농민 운동 때 농민군이 내세운 창의문의 내용이다. ②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박승환이 이에 항거하여 자결하며 남긴 유서의 내용이다. ③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을미의병에 관련된 내용이다.

11. 정답 : ①

① 문신이었던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의종의 복위를 꾀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1173)하였다. 이로 인해 문신들이 대거 살해되면서 무신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1193년 일어난 김사미·효심의 난은 경상도 전역을 장악할 정도로 세력이 확대된 무신집권기 최대 규모의 민란이었다. 십수 년 동안 지속된 동경(경주) 민란의 하나로 신라의 부흥을 표방하였다. 김사미와 효심의 농민군은 연합 전선을 형성하면서 토벌군에 항전하였으나 1194년 김사미가 투항하여 참수당하고 효심의 부대가 밀양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민란은 끝을 맺게 되었다. ③ 최중현은 1196년(명종 26)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고, 정권을 잡았던 당시 신종(1197~1204) · 희종(1204~1211) · 강종(1211~1213) · 고종

(1213~1259)의 네 임금을 왕위에 세우고 명종과 회종은 폐위시키는 등 나라의 정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였다. ④ 최우의 처 정씨(鄭氏)가 죽었을 때에는 장례 절차를 예종의 왕비인 순덕왕후(順德王后)의 전례를 따르게 하였다. 이 당시 왕실을 비롯해 상하의 관료들이 다투어 제수를 올리면서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썼던 탓에 저자의 물가가 폭등할 정도였다.

12. 정답 : ②

- ②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기록한 기행문은 『열하일기』로서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이 아니다.
① 2001년에 등재된 승정원일기에 대한 내용이다. ③ 2015년에 등재된 한국의 유교 책판에 대한 내용이다. ④ 2007년에 등재된 조선왕조의궤에 대한 내용이다.

13. 정답 : ②

- ② 성종 때 건원중보라는 철전을 만들었고, 숙종 때에는 삼한통보, 삼한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동전을 만들었다.
① 고려 종이는 가죽처럼 질기고 반질반질하여 등피지 혹은 경면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③ 고려 시대에는 개경에 상설 점포인 시전을 설치하였고,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게 하였다. ④ 문종 대의 경정전시과에서는 지방 향직, 이속(雜戶)도 토지 지금 대상에 포함되었고, 일반 전시과 외에 무산계전시가 병설되어 향리나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병(老兵), 공장(工匠), 악인(樂人 = 악공) 등에도 분급하였다.

1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 <보기 1>은 660년 황산벌 전투, <보기 2>는 666년 연정토의 신라 투항에 대한 내용이다.

- ③ 백제 멸망 이후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660)를, 경주에는 계림도독부(663)를 설지하고 문무왕을 계림주 대도독에 임명하였다.
① 천리장성의 축조 감독이었던 연개소문(淵蓋蘇文)은 642년 무단적 정변을 일으켜 자신을 해치려 한 영류왕과 반대파 대신들을 모두 죽이고, 영류왕의 조카인 보장왕(642~668)을 옹립한 후 스스로 대막리지(大莫離支)가 되어 무단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642)하면서 대외 정책을 강경화하였다. ② 신라 진덕여왕 대 648년 김춘추(김춘추)를 당나라에 사신으로 보내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원조를 부탁해 지원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나·당 동맹). ④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든 검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한성(황해도 재령)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670)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한 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15. 정답 : ③

- ㄱ.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영·중·소의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결정되었다. ㄹ. 이승만의 정읍 연설 등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이 제기되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면서 김규식·여운형 등의 중도파 인사들 사이에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기 시작하였고, 1946년 7월 좌우합작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ㅁ.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설회의는 1948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ㄴ. 여수·순천 10·19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0월 19일의 사실이다.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으나 군부대 내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며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하였다. ㄷ.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자택인 경교장에서 육군포병 소위 안두희의 총격에 암살당하였다.

16.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인물은 퇴계 이황이다.

④ 현명한 신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성학군주론’의 내용을 담은 『성학집요』를 저술한 인물은 ‘율곡 이이’이다.

① 이황은 주자의 서찰을 뽑아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였다. ② 이황은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언적의 주리론적 철학을 발전시켜 집대성하였다. ③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로는 유성룡, 정구, 김성일, 장현광 등이 있었다. 이중 도덕적 본성으로서 리의 절대성과 능동성을 인정하는 퇴계의 관점은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에게 전해져 이휘일, 이현일 형제를 통하여 심화되었으며 이진상, 곽종석 같은 한말의 이학자(理學者)에게 이어졌다. 반면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한강(寒岡) 정구(鄭述)는 퇴계 학설만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사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이들로부터 퇴계학파의 여러 분파가 생겨났다. 유성룡의 제자인 우복 정경세는 예학에 관심을 쏟아 역시 기호학파 중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과 비교되었다. 정구의 문인 증미수 허목은 기호 지역의 퇴계학파를 성립시켜 이후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성재 허전, 청담 이중환, 금대 이가환, 다산 정약용 같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정구의 제자인 여현(旅軒) 장현광(張顯光) 역시 이이의 학설을 절충하여 퇴계학파 긴밀하면서도 독자적인 여현학파를 성립시켰다.

17. 정답 : ①

① 노론 낙론 계열의 대표적 인물인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실옹과 허자의 문답형식을 빌어 지금까지 믿어 온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지구 자전설을 주장하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 다른 별들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 파격적인 우주관을 피력하였다.

② 반계 유형원에 대한 내용이다. 유형원의 가문은 대체로 정치적으로는 북인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광해군 대에 전횡을 일삼았던 북인 일파와는 정치적 견해가 달랐다. 유형원의 외삼촌이었던 이원진은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반대하여 귀양살이를 한 바 있고, 사상적으로는 퇴계 이황을 이은 남인에 가까웠다. 이러한 유형원 가문에 대해 학계에서는 북인계 남인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유형원은 전라도 부안군 우반동에 은거할 무렵인 1652년(효

종 3)부터 『반계수록』 집필을 시작하여 20년 가까이 지난 1670년(현종 11)에야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토지 소유관계를 혁신하고 국가가 이를 재분배하여(공전제) 농민 생활과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③ 성호 이익에 대한 내용이다. 유형원의 중농적 개혁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이익은 몰락한 남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익은 벼슬을 단념하고 경기도 광주군 첨성촌에 은거하면서 실학 연구에 전념하여 『성호 사설』을 비롯한 여러 저술을 남기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 내어 이른바 성호 학파를 형성하였다. ④ 『연려실기술』을 저술한 이궁익에 대한 내용이다. 실각한 소론 집안의 자제로 태어난 이궁익은 민간에서 정리된 야사·일기·문집 중 신뢰할 만한 기록을 중심으로 400여 종에 달하는 자료를 인용하여 『연려실기술』을 편찬하였다(1806).

18. 정답 : ②

제시된 강령은 1927년에 결성된 신간회 강령이다.

- ② 농촌 진흥 운동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세계 대공황 이후 식민 지배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제 농촌 운동이다.
①, ③, ④ 1920년대 일제는 친일파를 양성하여 조선 민족을 분열시키겠다는 민족 분열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참정권부여론을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 자치론이 대두하였고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자치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을 전개하였다.



19. 정답 : ④

제시된 사건은 896년 진성 여왕 대에 일어난 적고적의 난이다.

- ④ 궁예가 송악을 근거지로 후고구려를 건국한 것은 901년의 일이다.
① 대구화상과 각간 위홍이 향가집인 『삼대목』을 편찬한 것은 888년의 일이다. ② 진성 여왕 대의 세금 독촉으로 사벌주에서 원종·애노의 난이 일어난 것은 889년이다. ③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바친 것은 894년의 일이다.

20.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원자 정호(定號) 문제로 송시열 등의 서인이 실각한 기사환국에 대한 내용으로, 숙종 대의 사건이다.

- ① 조선이 청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러시아가 극동으로 진출하여 청과 대립하자 청은 정벌 군을 파견하였고, 조선에도 원병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에 걸쳐 면급(1차, 1654), 신유(2차, 1658)의 조총 부대를 러시아 정벌을 위해 파견하였다(나선 정벌).
② 금위영은 1682년(숙종 8) 영의정 김수항의 건의 이후, 훈련대장 겸 병조판서 김석주가 상소한 「군제변통절목」을 근거로 정초군과 훈련도감 별대를 합설하여 만든 군영이다. ③ 숙종 대에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독도와 울릉도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④ 숙종 대는 광해군대부터 추진되어 온 도(道) 단위의 양전사업의 연장선에서 1709년 강원도 양전, 1719~1720년 삼남 양전을 시행함으로써 서북방 일부를 제외한 전국적 규모의 양전사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숙종은 재위

초반부터 송래의 폐사군지(廢四郡地)에 관심을 보여 부장·자성 등에 진(鎮)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에 대한 영유권 회복과 적극적인 경영을 도모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